中國政局

汪內閣瓦解狀態

曹錕推薦運動

(北京四日發電) 汪內閣은 曹錕氏가 汪總理司法總長許世英、交通總長高恩洪의 罪跡을 摘發하는 故로 既히 瓦解의 狀態에 在하고 內閣은 顏惠慶을 首班으로하야 直隷內閣이 組織되고 其次에는 黎總統을 排斥하고 曹錕氏推薦의 運動이 起할 貌樣이라더라

王外交總長就任

(北京四日發電) 外交總長으로 任命된 王正廷氏는 四日午前에 就任하얏다더라

吳佩孚、羅文幹事件通電

(上海四日發電) 吳佩孚氏는 洛陽에서 通電을 發하야 曰 羅文幹事件에 對하야 曹錕氏의 意見에 從하야 法에 依할 解決을 主張하고 國會에 彈劾權、國民에 監督의 責이 有하고 瀆職問題에는 內閣連帶責任이 有한 故로 其責任이 辭職함에 止할 者가 아니라고 云云

山東鐵道賠償問題價格

(北京四日發電) 山東鐵道賠償價格에 對하야는 雙方의 主張이 有하얏스나 四日午後의 會議에서 四千萬圓可量으로 歸決되겟다더라

銀行團米國代表借欵談

(北京三日發電) 銀行團米國代表『스티븐스』氏는 語하야 曰 最近借欵進捗說이 傳하나 米國側에는 其事實이 無하고 今日의 境遇中國에 對하야 不快한 借欵을 結함을 希望치 아니하고 現在米國銀行家의 注意하는바는 元利를 支拂치 아니한 米國借欵의 義務를 中國이 何時에 實行할가 함에 在하고 且確實한 擔保가 無한 以上은 新銀行團도 承認치 아니할지며 中國은 借欵하는 事보다 先히 償還法에 關하야 一層考慮할 者이라 云云

歐米情報

希臘國革命騷亂

前閣員處刑에 對하야

(倫敦二日發電) 確實한 報道가 아니나『파도라미스론가』及『고레푸』에서 革命이 勃發하얏는데 此는 前閣員處罰에 抗議하야 起한 者이라더라

希臘親王審理

(雅典二日發電) 公式의 報를 據한즉『안드리우』親王의 審理는 今日開始될 豫定인데 其理由는 親王이『상가리아』의 戰爭에서『파々우라스』將軍의 命에 服從치 아니하얏다 云함에 在하다더라

親王證人申請

(雅典二日發電)『안드리우』親王의 審理는 二日開始된 意를 公表하얏는데 親王은 罪科否認의 證人으로 九名의 證人을 申請하얏는데 此는 許可되얏다더라

親王放逐宣告

(雅典三日發電)『안드리우』親王이 軍令에 服從치 아니하얏다하야 裁判에 附하얏는데 軍職을 剝奪하고 放逐한다고 宣告하얏더라

墨國暴動兆候

(墨西哥二日發電) 墨國에서는 三日市會議員選擧時水道欠乏으로 因하야 更히 暴動이 起할 虞가 有하다더라

英國經濟會議

(東京電) 英國政府는 明年自治領及印度에 對하야 英帝國經濟會議를 倫敦에 開催할 意의 通牒을 發하얏는데 右期日은 自治領上事情이 有하나 來年二月부터 六月間에 決定할 貌樣이며 會議에 提出할 問題는 通商上의 協力及失業救濟를 目標로 한 豫定이라더라

英下院海軍條約質問

(東京電) 英國海軍條約의 態度에 就하야 去二十九日下院에서 英國政府委員은 左와 如히 說明하야 曰 英國은 大戰艦十四隻에 對하야는 旣히 廢艦의 手續을 執하고 其以外의 二隻에 對하야도 本年末々지 廢艦할 手續을 終了할 豫定이라하얏는데 此에 對하야 一議員은 英國은『라이오레』號以外의 全部를 廢艦할 結果國防上에 危險이 生치 아니할가 하는 質問에 對하야 英國政府委員은 決斷코 如斯한 危險이 無한 意를 答辯하고 尙且英國은 率先하야 海軍條約을 實施할 誠意를 示함은 正當하다고 附言하고 更히 同議員은 他國이 同一한 行動을 執하기々지는 右以外의 軍艦에 對하야는 廢艦手續을 執치 아니할 事를 希望한다고 陳述하얏는데 政府委員은 此를 諒解할 意로 答하얏다더라

米廷、佛國前首相演說禁止

(華盛頓三日發電) 米國政府는『크레만소ー』氏가『아나포리스』海軍兵學校士官候補生에 對하야 演說할 事를 禁止하얏는데 尙且『크』氏는 市吏員의 抗議를 不顧하고『세ㄴ토루이스』에서 演說하얏더라

米國新急進黨組織進步

(倫敦三日發電) 華盛頓에 新急進黨組織은 上院議員『라퀴오레ㅅ도』氏主唱下에 漸次進捗하는 中이라더라

聯盟常設軍事會議

第九回議案

(東京電) 國際聯盟常設軍事委員會第九回會議는 五日『제네바』에서 開會되얏는데 其議題가 如左하더라

一、第三回總會의 決議에 基하야 各國平時軍備에 關한 統計調査

二、第三回總會에 決議한 一般保障條約의 各種適用方法이니 卽

(가) 一般條約

(나) 部分的條約

(다) 地方的協定

等에 關하야 軍事專門的見地로 研究할 事

聯合國將校獨逸工場管理

獨逸職工反對

(伯林三日發電) 聯合國將校가 獨逸工場을 管理코자하고 獨逸職工은 此에 反對한 結果不好한 事件이 起하야 獨逸及『바々리아』當局에서 調査中이라더라

獨逸政府重要會議

(伯林三日發電) 獨逸內閣은 最近數日間重要한 會議를 開하얏는데 諸新聞은 政府가 賠償政策에 關하야 不遠間意見을 發表할 줄로 期待한다더라

近東會議彙報

露土兩國脫退乎

(로ー싸ㄴ누三日發電) 講和會議는 露土兩國委員이 密接히 協調한 故로 何等進捗이 無하고 露國이 全權會議에 參加함을 不許하면 露土兩國은 脫退한다더라

露代表抗議書提出

(로ー싸ㄴ누四日發電) 露國代表『지々에링』氏는 海峽問題以外의 動議에 露國을 參加케 아니한 件에 對하야 抗議書를『로ー싸ㄴ누』會議長에게 提出하얏다더라

希土人民交換案可決

(로ー싸ㄴ누二日發電) 講和會議는 强制移民法을 實行하고 土耳其와 希臘의 一般人民을 一擧에 交換할 案을 可決하얏다더라

會議休會論

(로ー싸ㄴ누二日發電) 講和會議는 本月六日부터 十五日々지 休會하고 土耳其代表로 하야금 回教問題等에 關하야『앙고라』政府와 協議함을 得케할 議가 有하다더라

武器賠償問題

東京에 交涉

(東京電) 浦鹽에『체ㄱ크』武器紛失에 關한『체ㄱ크』軍의 賠償問題는 浦鹽에서 解決치 아니하고 日本軍이 撤退하는 同時에 交涉을 東京으로 移하얏더라

武器賠償價格

(東京電) 紛失武器賠償에 關하야『체ㄱ크』側에서 嚴重한 交涉이 有한 故로 畢竟三十萬圓以內에 妥協이 成立되리라더라

川上公使歸國

(東京電) 在波蘭日本公使川上俊彦氏도 或重大한 要務를 帶하고 來久에『왈쏘ー』를 出發하야 莫斯科부터 赤露를 橫斷하야 歸京할 豫定인데 公使는『레닌』氏와도 會見하고 實狀을 調査한 後歸京할터이며 此는 對露政策의 一轉機가 되리라더라

鐵道公債額

七千二百萬圓

(東京電) 日本特別會計來年度豫算中鐵道에 屬한 公債總額은 七千二百萬圓으로 大略決定하고 其財源으로는 一般公債六千萬圓、鐵道省剩餘金九百萬圓、大藏省剩餘金二百萬圓을 補塡하기로 決하얏다더라

青島行政還附

委員長決定

(東京電) 青島行政의 引渡期日은 十日로 切迫한 故로 其引渡委員長은 秋山民政長官으로 決定하얏고 此에 入澤總務部長及古賀遞信部長以下十二名의 委員이 附屬할터이더라

青島殘務整理

(東京電) 青島管內電信取扱所는 行政을 引渡하는 同時에 撤廢하기로 確定하얏고 但右撤廢의 翌日부터 青島、四方、蒼蓬、李村의 各局은 約二十日間、坊子、張店、淄川、芙江、白山、濟南의 各局은 約十日間殘務整理의 名으로 電信電話의 取扱을 繼續하야 中國側의 取扱準備가 成하기々지 居留民의 不便을 救濟하기로 하얏다더라

東京市會混亂

(東京電) 日本東京府會第二日은 四日午後四時부터 開會하고 議長彈劾動議로서 無端히 雙方이 騷動되야 大端히 混亂하얏는데 此時淺田會計課長이 警察權의 行使를 催促하고 議長이 臨席의 警官을 招한 故로 混亂이 益甚하야 醜態百出하다가 七時에 散會하얏다더라

廣島縣會騷亂

(廣島發電) 日本廣島縣會는 二日午後에 最終의 支部會를 開하얏는데 傍聽者와 議員間의 騷擾로 議場이 混亂하고 更히 縣會議員二名의 減員案을 上程함에 贊否의 議論이 沸騰하야 憲政會所屬議員支會副議長堀江秀一氏와 政友會所屬議員大同團結團總務肥田辰之助氏間에 爭鬪가 始하고 兩者의 議員이 互相大格鬪하야 議場이 全히 修羅場으로 化하고 負傷者를 出한 故로 警官三十餘名이 制止하야 僅히 秩序가 恢復되얏더라

復黨問題解決

(東京電) 日本中橋元田氏의 復黨問題는 兩氏가 簡單히 入黨申告를 政友會本部에 提出하얏슴으로 事件은 解決하고 四日夜兩氏가 共花屋에서 會合하얏다더라

別報

(東京電) 日本政友會復黨問題에 對하야 內田外相의 前閣僚及當時政府에 參與한 諸氏에 對한 晩餐招待會는 四日午後七時부터 築地花屋에 開催하얏는데 加藤高橋의 現前首相을 비롯하야 問題의 中橋氏外脫黨各氏가 出席하야 內田外相이 簡單한 禮辭가 有한 後元田氏의 病氣欠席의 電報를 朗讀紹介하얏더라

滿洲救濟問題

(東京電) 南滿一帶에 金融의 梗塞과 事業의 不振이 其極에 達한 故로 此에 對하야 救濟의 陳情又는 請願等이 頻々함으로써 日本政府에서는 等閑看過키 不能하야 同地方의 實附의 情況을 視察케하라고 大藏省富田書記官을 派遣하얏더니 到處에 救濟에 關한 談文이 多大한 中에 또 低利資金의 供給은 가장 渴望하얏는데 其視察을 終了하고 東京으로 歸來한 富田氏의 報告는 아직 無한 故로 詳細는 判明키 難하나 未久에 復命하면 此를 基礎로 大藏省의 態度는 決定할지라 救濟資金의 出處인 預金部에 現在金銀所在額은 一般이 想像함과 如히 巨額이 아니라 二千萬圓可量이오 오직 一縷의 望은 藏相이 滿洲財界의 窮狀에 對하야 此를 對視키 不忍하야 무상救濟方法을 講하겟다함이더라

正貨總額發表

十一月末現在

(東京電) 大藏省에서 發表한 바를 據한則 十一月末現在正貨는 十八億三千七百萬圓이니 同月十五日現在에 比하야 四百萬圓이 減少하얏다더라

朝鮮關係辭令

山口縣產業技師 辛島大作

任朝鮮總督府產業技師(八等)

朝鮮總督府師範學校教諭 兼京城醫專教諭 福富一郞

免兼官

私鐵補給金

約二百萬圓

弓削鐵道部長談

私鐵道에 對한 總督府補給金의 限度는 十年度以來年額이 二百五十萬圓인데 現在昨年은 各會社에 對하야 總額二百二十萬圓을 支給하얏스나 本年度의 補給金은 目下에는 前年에 比하야 約二十萬圓이 減하고 其總額이 二百萬圓內外가 될 貌樣이며 前年度의 殘額二十萬圓과 本年度의 豫算殘額五十萬圓은 明十二年度의 豫算中에 繰越하게 될지라 即大正十二年度에 各會社에 支給할 補給金의 最高限度는 三百二十萬圓일터인 故로 假令明年度에 六十餘哩의 新線이 開通하야도 不足하야 支給할지며 且鐵道의 明年度에는 全一面十二年…補給…二百五十萬圓의 擴張을 受하야 豫算이 決定치 不能한 故로 結盡을 樹立할 必…五十萬圓을 宗…에 比하야 顯著하는 者가 有하니 例컨디 圖們、南鮮과 如히 比較的 收入이 多한 會社가 相當한 成績을 擧하야 其會社에 對한 補給金의 一部를 支給할 必要가 無하기々지 待하기를 望할 外에 他道가 無하고 如斯한 事는 當局에서도 非常의 困難한 處地에 在한 時인 故로 當業者와 一般이 充分한 誤解가 有하기를 望하나 如斯한 事로써 朝鮮의 私鐵不振或은 進行上困難이라함은 非常한 誤解이라 經濟界不振은 事業界全般의 相當한 施設을 遂行하야 新線의 工事를 續行하고 私設鐵道는 一般의 事業界上으로 見하면 好況을 繼續한다고 可謂하겟다云

男女의 梅毒病

男子도 自己가 梅毒에 罹함을 不知하는 者가 有하나 女子는 自己가 梅毒에 罹함을 不知하는 者가 甚多하다◇其統計를 據한則 遺傳梅毒의 兒를 產한 女人中三割八分은 自己가 梅毒에 罹함을 知하나 六割二分은 全然不知한다◇是故로 兒를 產한 後에 該兒에 遺傳梅毒의 症勢가 出現함을 見하고 於是乎自己가 梅毒에 罹한 事를 知하는 者가 不小하다◇梅毒이 潛伏하라면 能히 幾年이라도 潛伏하고 男女中此潛伏梅毒이 有하면 後年에 至하야 腦梅毒、脊髓梅毒、癲狂、動脈瘤、骨膜炎、中風等各樣疾病을 發生하는 것이다◇其中에는 一生에 此等疾病이 發生치 아니하고 推過하는 者도 有하나 女人에게 梅毒이 有하면 其產兒는 依例히 遺傳梅毒兒이다◇遺傳梅毒兒는 產後未久에 梅毒의 症勢가 나 晩發性의 症勢가 … 歲以後부터 … 는 者도 有하며 … 有함을 知하면 其產兒가 亦 … 娠이 已久한 … 치 아니하고 … 는 것이다

歲末市況預想

殖產銀行調查

歲暮賣出을 一齊히 行하야 市況은 頗然히 歲末氣勢의 觀이 有하나 아직 餘日이 有한 故로 歲末氣勢가 濃厚치 아니하고 中旬以後에는 實際의 景況을 呈할 者임은 勿論이며 出來京城은 消費地로 給料生活者가 多한 土地인 故로 財界方面의 刺戟이 極甚하야 徹頭徹尾的으로 急激한 市況의 變動함이 無하고 昨年及一昨年에 歲末市況이 比較的好勢를 維持한 等의 事情에 徵할 時는 本年도 亦相當한 市況을 呈하리라 하나 昨年은 一昨年보다 本年은 昨年보다 漸次幾分間의 景況을 遞減中임은 否定키 難한 바이며 物價는 尙今安定의 域에 達치 아니하고 莫大小類와 如함은 前年에 比하야 二三割을 低下하고 特히 市內의 投物에 威脅되고 大阪時勢에 比하야 反히 逆鞘의 狀況에 在하고 其他一般物價의 前途는 大槪軟弱을 不免한 故로 所在商品의 消化에 腐心하고 雜貨商等의 賣出하며 間斷이 無히 行하얏슴은 商路뿐만 아니오 事實換金을 目的한 模樣인데 種々의 趣向에 客足의 吸集에 努力中이며 一般市況의 不振에 不實를 豫想하고 買入을 甚히 中止함은 勿論契約品의 解約受渡上의 紛紜等 取引上不好한 事例가 尙今不絶하는 現象이며 不堅實한 賣買를 避하고 去來處의 選擇에 留意하나 回收가 何如間如意치 못하니 其中二三處의 商店이 此弊가 甚하고 外上代金回收不能함이 殆히 未曾有하다고 稱하고 表面上은 潤澤하나 支拂은 反히 不良한 奇現象인데 今後의 回收如何는 商人의 가장 念慮하는 바이라 以上과 如히 不況이나 尙且相當한 景況을 豫想하나 市中에 金融의 逼迫이 甚한즉 年內或은 窮狀을 暴露할 事를 杞憂하나 各自警戒하면 如斯한 動搖가 無할지라 日本人側에 市況이 歲暮賣出의 開始에 相當한 活況을 呈함에 不拘하고 朝鮮側에 市勢가 甚히 不振하며 米價가 廉함에 伴하야 地方農村의 景況이 不振하는 所以로 對地方取引이 鈍狀을 繼續하야 市況의 沈滯가 甚한바 元來朝鮮側에 新年은 尙今陰曆으로써 行하는 故로 陰正月々지는 尙遠한 期間에서 今後充分한 穀物의 出廻를 見하면 諸商店의 需要를 喚起할지나 今에 遽然히 活氣를 呈치 아니할지오 不況에 小商店의 窮境에 在한 者가 多하며 布木商中에 日下閉店整理中에 關한 者가 有하나 影響이 大치 아니하다더라

朝銀所得狀況

朝鮮銀行超過所得額을 除하고 大正八年以降의 所得額은 左記와 如한데 大正九年上半期의 好況當時는 最高를 示하야 本年은 頗히 不良한 바 其成績은 上半年에 二百四十一萬二千七百二十五圓을 獲得하얏고 此財界不況을 不拘하고 所得은 爲先成績이 順境인데 下半年은 아직 判明치 아니하얏스나 上半年보다 不良한 貌樣이라더라

	所得額	所得額	所得稅額
	圓	圓	厘
八年			
上半期	一、六六九、三二四	一二七六、六九〇、〇三二	
下半期	二、一八四、六八五	一六三三、八二八、八〇七	
九年			
上半期	三、八二六、六八五	二六七〇、〇〇二、三〇七	
下半期	三、五五七、四三二	一八二一、八六〇、一〇〇	
十年			
上半期	三、五一六、四六六	一七〇三、五四四、一〇〇	
下半期	三、三五四、二八六	一七六〇、六七三、六〇〇	
十一年			
上半期	二、四一三、七二五	一〇七〇、一六九、二〇〇	

◇『폰네리아』海虫◇

軟體動物의 雌雄은 虫과 如히 雄이 雌보다 小하나 其中에도 尤甚한 것은『폰네리아』라 稱하는 海虫이니 雌는 自體가 一寸三分可量이로디 雄은 顯微鏡으로 僅히 認見하게 되고 又平時에는 雌의 腸管內에 在하다가 生殖時期가 되면 該處에서 出來하야 雌의 生殖器의 一部에 附着한다

殖產所得金額

殖產十年上半의 內容은 總益金九、七一一三三二三圓八三總稅八、六二八、九九九圓〇二錢으로 其課稅內容은 如左하다더라

十一年上半期

		稅額
超過	二六三、三六一	一〇、四九五、三四
保留	三四四、四〇五	一七、三三〇、三五
配當	六四二、一三四	三三、一〇六、七〇
計	一、〇四〇、三三四	五九、八三三、一九

中央鐵道列車試驗

朝鮮中央鐵道는 來七日부터 約一週間의 豫定으로서 大邱、浦項、蔚山間의 列車速度及牽引試驗을 行한다는데 鐵道部에서는 工務課技師岩崎眞雄氏가 此에 立會하라고 六日午前에 京城發로 當地에 出張할 豫定이라더라

東方文化大學

創設發起人會

自由討究社主幹細井肇氏의 主唱에 依하야 東方文化大學創立에 關한 事는 既報하얏거니와 此發起人會는 五日午後五時부터 京城『호텔』에서 開催하고 出席者는 朝鮮人側에서 朴箕陽、李光鍾、宋鎭禹、羅晴湖、玄檃、吳兢善、洪承耉、崔國鉉、李覺鍾、秦學文等諸氏로 日本人側에서 孫子勝氏外拾數名이 創設에 關한 諸般을 協議한다더라

郵局戶口調查

京城府町洞의 番地區劃은 自然成行에 放任하야 發達한 故로 錯雜이 極甚한 …

車輛稅脫稅增加

京城府內의 車輛稅의 脫稅者는 每月增加하는 傾向인디 從來府에서는 此取締에 相當히 努力하나 其實績이 無한 現像이며 特히 自働車人力車等의 脫稅에는 其取締에 苦心中인디 今後는 警察當局者와 協力하고 此取締에 盡力할 方針이며 二日부터 鍾路署管內에서 實施하는 中인바 將來는 脫稅者도 無히 良好한 結果를 見할지며 又取締의 勵行은 確實嚴格히 할 決心이며 脫稅者의 大部는 自家用、營業用인디 特히 甚한 者는 醫師의 自家用自働車自家用이 多한 貌樣이라더라

府內屠獸總頭數

京城府內에 在한 十月中의 屠獸頭數를 據한즉 吾人의 肉用에 供하야 最多한 牛豚은 前月에 比하야 牛는 百十五頭豚은 四十四頭의 增加를 示하얏는 …

京城穀信會社總會

京城穀物信託株式會社는 三日重役會를 開催하고 當期決算案을 決定하얏는데 來二十日總會를 開催하고 此를 附議決定한다더라

露避難民救濟委員

『레베데푸』中將을 委員長으로 한 避難民側救濟委員會에서는 避難民會部의 統一을 圖하기 爲하야 現在元山에 在한 四十二縣의 出身者中에서 委員을 選定하야 任命하얏다더라

官民有志婦人招待

齋藤總督夫人은 六日午後二時半부터 總督官邸에서 高等法院長夫人外官民有志婦人令孃及婦人記者等三十餘名을 招待하야 茶菓의 饗應이 有한다더라

竹內局長送別會

臺灣總督府警務局長으로 轉任된 竹內又治郞氏에 對한 總督府關係의 送別會는 五日零時半부터 總督官邸에서 開催하고 在京各局部長及遞信課長以上이 出席하얏더라

人事消息

▲西崎鶴司氏(總督府山林課勤務事務官)는 往復十四日間의 豫定으로 忠北、慶北、江原及全北管內에 出張被命四日朝出發

▲鴨原篤二氏(同上)는 十四日間豫定으로 慶南管內에 出張被命四日出發

▲井上總督府稅務課長은 地方에 出張中인바 九日歸任의 豫定

保安林編入告示

森林令第一條에 依하야 忠淸北道淸州郡萬升面廣惠院里國有山二三番地林野十町을 保安林에 編入하는 旨를 十二月六日附官報로써 告示하얏더라

青島郵便引受停止

青島守備軍管內에 發送하는 朝鮮、日本、臺灣、樺太及中國關東州郵便規則에 依하는 小包郵便物及書類以外의 特殊取扱을 要하는 通常郵便物은 此의 引受를 停止하는 旨를 十二月六日附官報로 告示하얏더라

民聲

▲高陽郡崇仁面…『陽花木易爲春』이라는 말과 갓치 潮의 感觸과 人文의 進化가 他地方다 最先頭될 것갓지만은 그럿치 못한 것은 이 안이 怪異한가▲今日崇仁面은 別다른 곳이 안이라 往日漢城府部字內一部와 楊州牧古楊州面一部를 合하야 劃定한 區域인데 그의 由한 歷史를 溯考할진데 半島文明의 中心되는 京城에 逼近하다는 名稱이 虛無할 地境이엿다▲興仁之門이라는 懸板밋헤 나서々 東으로 遙々望하면 琵々한 人家가 三々五々히 在한 山澳野腹에는 治菜翁禁松軍이 往來하는 寒影뿐인 것은 이 삼에 都定한 後五百年의 一貫하던 狀態다▲그런데 思潮의 感觸이 무어인지 人文의 進化가 무엇인지 그 蕭條한 帶에서 仁昌義塾이라는 學校가 新築되여 落成式々지 經過하고 附近樵牧化하는 新進을 教授하야 教育이야 그 안이 稀貴한 事業이 안일가 그 뿐 안이라 該塾의 設立上維持上經費를 專擔하는 孫昌源氏로 말하면 財產家라 指目은 하지만은 誰某々하는 豪富도 아니오 다만 勤儉節約하야 家產을 維支하는 터인디 慈善心公益心이 自手成家한 人物로는 孫한 아뿐인 듯

商況

京取低落

仁川期米

京株市場賣買價

廣文社新紹介

演說及式辭法

時事講演錄

男女聯合討論集

歐米新人物

中國維新人物誌

英語自習

國語自習辭典

西太后傳

薪山玉

第六十九回 삼만원의돈은누구? 〔十一〕 碧霞 著

그러나 영자가 그셋문쪽으로 가셧지만은 그셋문조차 영자가 미박안으로 드러갈수잇도록 문이열니지아니하고 잇가운과갓치 조금도 요미작을 하지아니하얏다

이써에 영자는 할수업시 잇가운압흐로 밋친사람과갓치 다시써 흥々々 뛰여왓다

그리하야 영자는 몸이 써여지도록 탕탕 문에다가 몸을 부듸치엿지만은 그써에 방문은 조곰도 움정업시 저ㅣ연약한 영자의 몸이 부듸칠적마다 영자의 몸을 바더던저엿다

지금에 자긔의 힘으로는 어 밧문을 열고 드러갈수가 전혀업슴을 안 영자는 피눈물을 흘니며 박문을 두달이며 애원하게 자긔 아바지를 불넛다

「아바님! 아바님! 왜ㅣ 방문을 안니여러주십닛가? 저는 원통합니다 오날날까지 아바님께서 무슨일이든지 말삼하시라거늘 지금에 무슨일을 하섯고 방문마다 꼭々장그시엿슴닛가 아큐! 아바님! 아바님! 이 영자를 방에서 니여쫏치시고 무슨일을 하시라고 하십닛가 아바님! 너무나 원통합니다 만약 지금에 아바님께서 의지의탁할곳이 바이업고 오직 아바님한분을 어마님겸히서 뫼시고잇는 외로운 영자 하나를 이무의무정한 이세상에다가 홀로 내여던지시고 도라가시면 이영자의 외로운 몸은 누구를 의지하고 사오릿가 아바님! 아바님! 져는 아바님의 뒤를 짜라가겟사오니 이 방문을 떠러주시고 아바님과 한가지로 이 냉냉하고 불공평한 이세상을 써나서 져세상으로 아바님을 뫼시고 가고자 합니다 아바님! 왜ㅣ 뒤답조차 업스십닛가 별서 이세상을 써나섯슴닛가? 아바님! 참말로 원통합니다 엇더한일로 말미암아 니가 세상에 잇슬수가 업다는 말삼한마듸만 하서주셔도 원한이 업겟슴니다

아ㅣ 아바님!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악마이올시다 져도 역시 이세상을 써나라고 결심하온지 임의 오리되얏슴니다 그럿치오만은 외로우신 아바님을 홀로 무정한 세상에 계시게하고 져혼자 죽기는 참아할수가 업셔셔 오날날까지 참아왓슴니다 지금에 아바님께서 엇더한일로 [illegible]

各地報道

洪原漫筆

一、青年會의設立을促함

本來부터 青年團體가 업든것은 안이엿다 只今부터 二年前 民族運動이 勃興하야 三千里江山에는 三尺童子ㅅ지도 新潮의 大流에 共流치 안임이 업슬만큼이라 [illegible]

女子巡講會

京城女子基督教青年會에서는 西地方을 巡廻講演한다함은 旣報와 갓거니와 去月三十日에 該會總務 弼禮女史가 開城에 到着하야 當日 後七時에 高麗女子舘에서 開城女子教育會副會長崔泰玉女史의 司會에서 西鮮講演의 첫소리를 顯出하는데 聽衆은 滿員을 成하얏고 [illegible]

殘月 (十五)

勞働夜學開催

順川儒林奮起

米穀商組合

聯合衛生展覽會

李崔兩氏의講演

守備隊歸休兵出發

可賀할嚴氏의敎睦

婦人商會狀況

消防組에寄附金

振興會聯合會槪況

辭令塔

鐵道開通式